

5·18민주화운동 3단체, 공법단체 된다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속원 해결

내년 4월 출범...회원 복리증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과제 산적

5·18 기념재단과 관계 설정...유가족 범위 축소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내년 4월부터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공법단체 결성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들도 생겨나 지역사회와 5·18 관련단체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단법인이었던 기존 3단체는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2월 5일 이내에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정식 공법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기존 3단체가 해체하면서 새롭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구성되게 된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공법단체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보훈처장의 승인을 거쳐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도 가능해진 것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지만, 여러 가지 숙제도 존재한다.

그동안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던 3단체와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5월 단체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는 기념재단측이 사업의 주도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18 유가족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6호(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당장 방계혈족의 유가족들은 회원의 자격까지 잃게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언제나 끝날는지...

29일 광주시 북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이 종사자와 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연말연시 한파·대설

내일 최고기온도 영하권

전남 서부 최고 30cm 눈

연말연시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부터 1월 1일까지 매우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20cm이며, 전남서부권의 경우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30일 오후부터 31일 아침까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눈과 함께 추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최고기온마저 영하권으로 머물겠고, 31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안팎으로 이변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달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4~5일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으며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시설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며 "5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강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日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이번엔 받을까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효력 오늘부터 발생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허가금' 신청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29일 발생했으며, 나머지 2건의 효력은 30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

앞서 매각명령 심문서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은 발생한 상태로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만큼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지급→배당 등 압류된 미쓰비시 측 국내 자산의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약 8억 400만원 가치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기초학력 향상 대책 마련해야

수학 등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지역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초학력과 수리력 향상 등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민주당·목포4) 의원이 내놓은 202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학생들의 각 과목 수능 점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국어의 전국 평균(수능 표준점수)은 97.1점이었지만 서울은 100.9점, 대구 99.6점, 제주 99.6점, 광주 97.9점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 92.7점, 경남 93.7점, 전남 93.9점 순으로 낮았다. 사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수학 기형'의 경우도 전남은 88.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다. 또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도 강원, 충남, 전남 순으로 낮았다.

각 과목의 등급비율 또한 전남 학생들의 성적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어 1등급 비율이 서울은 5.7%, 대구 3.7%, 경기 3.7%였지만 전남은 2.1%에 그쳐 경남 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수학 가형도 전남 지역 학생들은 1.1%만이 1등급이었다. 수학 나형 또한 서울은 1등급 6.3%, 2등급 7.8%였지만 전남은 1등급 2.5%, 2등급 4.0%에 머물렀다.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영어도 전남은 1등급이 3.6%에 그쳤으며, 2등급도 10.0%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전남의 경우 수시 집중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향후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이제는 수시와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과 수리력 증진, 독서량 증대 등 장기적인 학력 향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교사노조 새 집행부 구성...세 확산 모색

광주 교사노동조합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내년에 조합원을 15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세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 교사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정현 서광초 교사와 이용선 광주공고 교사를 차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며 현재 595명인 조합원 수를 2021년에 1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교사노조는 "광주교총, 광주실천교육교사

모임, 전교조 광주지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교사노동조합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설립된 광주 교사노조는 전교조와 ▲상호보완 ▲역할 분담 ▲진보 경쟁이란 기치를 들고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교사 보복 해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광주 명진고 문제를 파헤쳤고, 사학재단 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나는 주인공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당신, 국립목포대학교가 함께합니다

[교육부]
4차산업혁신 선도대학 선정

융·복합
첨단 디지털도서관
신축/리모델링

BK21단계
바이오 의학 분야
최종선정

K-move스쿨
국립대 유일
5년 연속 선정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미래운송기기 핵심분야
중심대학 선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약 337억
LINC+,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학부 입학생 희망학과 100%자율선택권 보장 학부 입학생의 경우 1학년은 가전공제도로 운영되며 2학년 진입 시 희망학과 100% 보장합니다.

저렴한 등록금
연간 평균
390만원

풍부한 장학혜택
재학생 평균 수혜자
88.7%이상

전노선 무료
통학버스 운영
광주, 영암, 나주 등

편안한 학생생활관
신입생
50% 우선 배정

원스톱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02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2021.1.7.(목) ~ 2021.1.11.(월) [5일간] 입학상담 (061)450-6000, 6001

※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련 홈페이지(<http://ipsi.mokpo.ac.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